



외대학보

진리 평화창조

1999년 3월 15일 (월) 제733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관> 발행인 조규철 편집인 권주관 조영문 편집장 임승호 인쇄인 홍준우 외대신문사 961-4151, 862-7120(국)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4466 FAX 961-4163 (음민) 0335-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란면 월산리 89

용인총학 등록금민주납부운동 전개

18일 총장방문의 날 대규모 학내집회 계획

용인대총학 등록금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성회비납부 반대'를 통한 '등록금삭감투쟁'을 위해 오늘(15일)부터 실질적인 민주납부절차에 돌입한다.

지난주 각 단대학생회는 학생들의 민주납부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함께 기성회비납부, 등록금 납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총학생회에 위임하는 위임장 등을 접수했으며, 민주납부 방식은 오는 25일(수)까지 기성회비(62만1천)를 제외한 등록금을 총학생회에서 마련한 무통장입금 시스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학생회는 이러한 민주납부를 통해 집회 등록금으로 24일(수) 변호사단

구성을 완료하고 25일(목) 공탁소송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용인대총학 등록금회장 신동현(동구·원거리 4)군은 "대학입학이 2차 등록기간을 17일(수)까지로 정했으나, 수업일수의 1/4은 29일이므로 21일까지 민주납부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대학과 총학생회는 '기성회비'를 바라보는 시각부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선 학교측은 "기성회비 구상과 기성회비는 합법적이며 문제점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3월 15일 현재 미등록학생은 30%정도에 불과하다. 때문에 우리는 학비에 의거, 29일까지 등록을 안한 학생에 대해서는 미등록제재자로 처리할 것이

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총학생회는 결의심 방문, 등록금 투쟁 실천단 활동등으로 민주납부의 정당성을 밝히고 '민주납부' '공탁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집의를 발을 예정이다. 또 민주납부의 적극적 참여 유도로 단대학과의 입장에 적극 대항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목) 조규철 총장이 용인대총학에 방문하는 날에는 대규모 학내집회를 열어 '등록금 삭감' '온라인 수강신청관련 교무행정 규범' '일방적인 경쟁제' '학제개혁 반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밝혔다.

한편 총학생회는 이번 '등록금삭감투쟁'에 동참하고 있는 전국 20여개 대학과 연대하여 민주주의민족통일전

국연합(전국연합), 참교육학부모협의회의 지지 아래 '대학등록금 삭감'과 민중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26일(금)부터 27일(토)까지 양일간 한양대에서 열리는 '청년문화제'에 참가하여 '등록금 삭감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해 광범위한 여론화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김동욱(자연·환경 4)군은 "등록금삭감투쟁으로 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등록금투쟁을 법적소송을 하는 것만 고치지 않고 학우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등록금삭감 투쟁을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우혜나 기자



서총련 개강투쟁선포식

지난 11일(목) 연세대에서 약 2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총련 개강투쟁 선포식이 진행됐다. 이날 집회 참석 전이인 미국의 전쟁책동, 강제 철폐 분쇄 4·2 한총련 총궐기, 4·3 민중대회 성사를 위한 개강투쟁 선포문"을 함께 읽으며 99년도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서총련, 개강투쟁 선포

전쟁책동 분쇄,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요구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은 지난 11일(목) '미국에 의한 전쟁책동, 경제침탈 분쇄, 4·2 한총련 총궐기 및 4·3 민중대회 성사를 위한 서총련 개강투쟁 선포식(사개투)'을 연세대에서 진행했다.

이번 선포식은 특히 담당한 정세를 크게 인식하고, 오는 4월 2, 3일 총궐기 및 민중대회 성사를 결의하기 위한 집회였다.

이날 정권은 아첨부터 현안대를 원천 봉쇄하는 등 공격력 동원 움직임이 보였고, 대외 직전 연세대에이후 이중 불심검문을 진행하는 등 선포식 개최를 탄압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민단 선전전으로 시작된 이날 집회에서 원연수(전국민연합 의장)씨는 연세대를 통해 "범민권과 한총련은 통일운동의 동반자였다. 진정 통일을 원하는 정권이려면 이적단체 규정을 즉각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간대중의 사대매국성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

에 대해 서울동부지구학생회연합(동총련)임시집정재인(서울산업대 총학생회장)은 "지금 어민분들을 만나 보면 모든 일손을 놓고 한숨만 짓고 있다.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권'이 유린당하는 한일어업협정이 분노를 느끼야 한다"라며 "뜨거운 감자인 배타적 경제수역분쟁은 우리도 찾아온채 독도를 공동관리수역으로 하는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한 것은 일본이 독도를 장악하기 위한 3단계중 2단계"라고 주장했다. (본문으로 이어짐) 사회부

의대신문 신문발행계간

의대신문 사정으로 신문이 15일(월) 오후 늦게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 바랍니다.

외대학보

동구어대 학생회 합법화 논란

동유럽대 분리 문제도 아직 확정 안됨

오는 2천년 교육부의 '용인대총학 등록금회(현재 명칭 동구어대) 단대 분리 승인'을 앞두고 '동구어대 학생회 합법화'가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금) 동구어대 학생회장과 학생회장간의 면담결과 학생회측에서는 동구어대 학생회를 합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동구어대 학생회장 장학금 지급과 학생회에 대한 고비지급이 불허할 전망이다. 또 교육부의 동유럽대 단대 분리 승인도 이사회 통과를 위해 보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구어대학생회는 동구어대 학생회가 개설된 후 10여년간 계속되는 단대 분리 투쟁이 당초 대학합병의 단대 분리계획으로 실현되는 듯 했으나 여전히 확정되지 않아 사실상 합법적인 학생회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동구어대 학생회장 박재웅(물리 3)군은 "2천년 단대분리라는 대사를 앞둔 상황에서 학생회 합

법화는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다"며 "대학입학의 입장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동구어대 학생회는 이번 주 5개학과 학과장 면담을 진행했고 동구어대 소속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우혜나 기자

| 시 | 명 |
|------|-------------|
| 대외부장 | 유재석(사·행정 2) |
| 사회부장 | 이승호(사·신방 4) |
| 문화부장 | 김민석(사·영어 3) |
| 사건부장 | 한성준(사·독일 4) |

외대학보

민중

기러기 울음소리

▲철새기러기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면, उसे V자 형태의 기러기 대열을 볼 수 있다. 이 대열의 속삭임에 대해 과학이 발견한 사실은 기가 막하다.

각각의 새들이 날개를 저는 것은 바로 뒤에 따라오는 새를 위한 상승기류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한다. 정권의 한총련 탈퇴 공작이 본격적으로 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기러기 무리가 V자를 그리며 날아가는 것은 각각의 새가 혼자서 날아가는 것보다 최소한 71퍼센트의 더 넓은 거리를 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때 이들 기러기는 한마리라도 대열에서 이탈하는 그 순간 대기의 저항력을 느끼며, 재빨리 대열에 합류하지 않으면, 따뜻한 남쪽까지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목적지까지 모든 기러기가 안전하게 도달하기 위해 뒤쪽의 기러기들은 앞사기 기러기들이 속도를 유지하는데 힘을 북돋우기 위해 계속해서 울음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민중들의 손가락, 발목이 질러 나가기 하는 경제, 어민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삼 하나를 잃어버린 한 못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앞서 서서 선두지위를 하는 대의원들에게 대열의 후 반부서 힘을 실어주는 고통받는 민중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다.

임승희

고 말하는 대학생들이 있다.

이 대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만든 조직이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며, 또 학생들의 민주적인 선거로 당선된 이들이 한총련 대의원들이다. 그런데, 이 한총련 대원을 흠뻑려 놓는 공작의 저항력이 거세지고 있다.

정권의 한총련 탈퇴 공작이 본격적으로 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기러기 무리가 V자를 그리며 날아가는 것은 각각의 새가 혼자서 날아가는 것보다 최소한 71퍼센트의 더 넓은 거리를 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총련 대의원에게 탈퇴를 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하겠다는 이 탈퇴공작은 학생들을 대표하는 대의원 한사람이 결코 개인으로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없기에 정권의 탈퇴가 자제가 성립 될 수 없다. 한총련 탈퇴에 관한 문제는 한총련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단 정권의 이데올로기정책으로 정권되어 있는 '최정용 공' '독력세력' 집권 한총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한총련에 대해 알고 난 다음에야 말이다.

또 한총련을 탈퇴하는 것은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것을 '해체'했다는 공안세력의 전근대적인 발상에 한 못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앞서 서서 선두지위를 하는 대의원들에게 대열의 후 반부서 힘을 실어주는 고통받는 민중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다.

“대학에 들어오니 모르는 얘기 투성이예요”

A 경제가 어려운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된 것이지만 나라 탓이 아니잖아요.

B 미국은 IMF를 일찍 경제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어느곳에도 자기나라 경제기반을 짐작시키는 IMF처럼 예 한미디 이의제가 없이 고분고분 따르던 나라는 없습니다. IMF 스스로도 한국의 '재벌전 이 오류가 있었다고 실패했다고 경제침탈' 번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남은 것은 파탄된 생존권과 기러기 내몰린 민중들의 신용불안입니다.

A 맞아요. 우리도 버지도 요즘 너무 천체요. 명퇴·정리해고·퇴출...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게 미국의 경제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요즘 계속 얘기되고 있는 전쟁 얘기도 미국 때문인가요?

B 물론입니다. '5507' 적정개혁'은 한민당을 핵전쟁으로 끌어들여버리는 계획입니다. 지금의 위기탈출을 위해서 말이죠. 이 전쟁계획은 제3세계 언론을 통해 공공연히 유도되고 있으며, 실제로 울지포스스펜트후론, 98 최정용, 한미일합동 군사훈련등 한민당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땅인데, 감히 미국이 우리 생명을 담보로 한민당을 넘 보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가 우리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책동, 경제침탈 게다가 '국민'을 버리는 '국민의 정부'를 '만개적 용납할 수 있었습니까? 미국의 전쟁책동·경제침탈, 바로 나라의 앞입니다.

민중자유연
외대학보

1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검토한다

동아시아 경제의 발전동력, 외세의존적이고 민중배제적인 개발특성은 실패했다

2

여러 경제발전 모델을 고찰한다

각 나라별로 다양한 경제발전 모델은 경제발전모델이 현실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3

자립적 민족경제모델을 분석한다

앞에서 분석했던 많은 경제발전모델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 자립적 민족경제 모델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4

제3세계 경제의 대안은 무엇인가?

제3세계 민족, 민중이 지구화, 세계화의 압박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발전노선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5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선택해야 할 대안을 모색한다.

총체적 경제 파탄!

그러나 대안은 있다

제3세계, 발전으로 가고 있는가?

지난 주에는 동아시아 모델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부터 부각된 동아시아 모델은 지난 동아시아발 위기의 위기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이 다한 느낌이다. 소위 세계 자본주의의 제3세계에 대해 던진 중요한 발전의 동력으로 미화되어 동아시아 모델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내적 한계로 말미암아 붕괴된 것이다.

제3세계 발전전략의 모색

그렇다면 과연 제3세계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발전 모델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현대 OECD의장을 했던 Keith Griffin은 서구 제3세계 모두를 아우르는 발전 전략으로 6개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통화주의 전략(Monetary Strategy), 외부지향전략(Outward looking Strategy=Open Economy), 산업화전략(Industrialisation), 사회주의전략(Socialist Strategy), 재분배 전략(Redistributive Strategy), 녹색 혁명 전략(Green Revolution Strategy)이 그것이다.

순수 자본주의의 발전전략

이중 통화주의 전략은 서구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전략이고 최근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정책의 핵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제3세계가 취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에 생략한다. 설명 체계가 취약하다면(실제 실패나 아르헨티나 이같은 정책을 취하였을) 그것은 '탈국 민족 자본주의국가'에 적합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 대해서는 지난 동아시아 모델에 대한 글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생략한다. 다음은 외부지향전략인데 이는 산업화 전략과 결합되면 곧 '순출주도산업화 전략'인 '동아시아모델'이 된다. 따라서 지난주에 동아시아 모델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녹색혁명전략

'다음은 녹색혁명전략인데 이는 발글라데시나 필리핀이 그 예이다. 이들 전략은 농업 성장과 식량 공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풍부한 식량 공급은 도시 저

임금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저축증대와 성장 효과를 지니게 된다. 고용 문제는 노동 집약적 산업에 특화함으로써 고용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제도변화보다는 기술(technology)에 관심을 가지는 것인데 따라서 토지개혁보다는 비료 공급, 생산성 증대, 수송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들 스스로는 전반적 성장, 빈곤 퇴치, 광물분배 전략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제도 변화에 대한 소극성이 근본적인 사회 경제 발전에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대도시나 농업적 기반이라는 자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3세계 일반에 취하기는 힘든 점이 많다.

또한 삼각적으로서의 공급화보다 농업에 특화함으로써 비교 우위를 누리는 것인데 자립 농업 기계화와 병행되지 못할 경우 기계공업 국가에 대한 구조적 종속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가 작용하기도 하여 2차 세계대전 직후 많은 국가들로부터 배척된 경험도 있다.

산업화전략과 수입대체 산업화

산업화 전략은 통화주의전략과 다르게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성장에 대한 강조를 특징으로 하는데 특히 제조업 분야를 강조한다. 이 전략에서 국가의 개입은 생산의 향상이 목표인데 이는 분배 효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이 전략은 특히 저소득층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으며, 빈자들에 적대감을 보이고, 저소득층에게 호의적인 특징이 있다.(투자는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빈자들은 성장의 결과로 분배 이익을 얻는다고 가정된다. 여기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 ① 관세 장벽에서 제조업 소비재품을 국내용으로 생산
 - ② 자본재 산업에 집중(국가 주도)
 - ③ 수출을 위한 제조업(계획과 자급률의 보조를 결합)
- 여기서 ③의 유형이 바로 외부지향전략과 결합된 동아시아 모델이다. ①②의 유형은 소위 '수입대체 산업화'라고 분류되는 브라질, 인도 모델이기도 하다. 소위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이라는 것은 산업화 전략과 자립 전략이 결합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정정도 자본주의화가 진척되면 반드시 시장이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 시장의 수요를 자극하고 공급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요구를 갖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계공업 등의 자본재 산업에 치중하게 된다. 자본재 산업은 육성하고자 하는 이러한 전략은 그러나 자본재 수입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철저한 자립

노선에 기반하지 않고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자립을 달성해 보겠다는 이같은 수입대체 산업화전략은 자본재 수입이 가져오는 또 다른 종류의 문제의 수반 자본재를 통한 생산이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초과 공급의 상황에 처할 때 역시 외부 시장을 향해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대외존형 자립의 딜레마 문제를 야기한다. 실제 국내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되어 각종 생산재 수입이 국내 수요의 초과공급 문제를 낳지 않는 경우에는(중국이나 인도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도 자본재 자체로 생산해내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자립은 불가능할 것이고 결국 종류의 문제를 면치 않을 수 없게 된다.

사회주의 전략과 북한의 자립 모델

다음은 사회주의 전략이다. 여기서 국가는 단순히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경험'한다. 가격은 계획에 의해 결정되지 시장요소에 의하지 않는다. Griffin은 이같은 사회주의 전략을 또 다시 4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소련 모델, 유고의 자급률모델, 농업사회주의 모델, 북한 모델이 그것이다. 이중 유고 모델이나 농업사회주의(중국)모델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사려다 버렸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

소위 소련 모델 즉 스탈린 모델은 거대 농업부문을 가진 나라의 산업화 전략으로 재택가능하며 성장의 중요한 계층이다. 산업의 초기 분야가 성장하고 제후자를 위한 이윤이 낮은 상태에서 빠른 성장을 보장할 투자를 재정지원을 방도를 농업으로부터 찾는 전략이다. 결국 이는 국가 부분의(농업부문에서) 인력 수탈을 통한 국가부문의 강화로 귀결되며,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빠른 산업화의 강조
 - ② 농업 희생
 - ③ 소비 억제를 통한 높은 자본 축적률을 보장
- 여기서 소비 감소를 투자 증가로 돌리는 경로는 (가) 농산물 수출을 통한 기계 수입 (나) 불균형성장 정책(중공업우선)의 두가지이다.

④ 중공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과 자급자족 과정 이같은 스탈린 모델은 불균형성장과 소비 억제전략이라는 특성으로부터 국내의 심각한 저항 특히 농민들의 강한 저항을 초래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 Griffin에 따르면 북한 모델은 높은 자본 축적률, 높은 저축률을 특징으로 하는 포괄적, 다각적, 종합적 민족 경제체제이다. 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러 경제 발전모델 중 총체화된 우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외세의 정치적 압력에 맞서, 필동한 반대를 이루어 성공할 수 있는 경제발전 방식이어야 한다.

- ① 비교우위에 의한 특화 원리(사회주의 분업원리)를 거부
- ② 균형발전 전략(중공업 중심의 농업, 경공업 동시발전 전략)
- ③ 고도로 다양화되고 지리적으로 분화된 산업 부문
- ④ 산업 고용도는 제3세계의 2배
- ⑤ 도시화율은 산업화율과 동일
- ⑥ 다량의 중요한 특징은 자립과 관계된 것이다. 이는 국내 식량자립, 원료자립, 연료(석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표현되는데, 에너지 집약의 경제 발전에서도 성공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립 정책은 제한된 소비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은 중진국가의 국가에서 자립을 가능케 하는 모델이기는 하지만 강한 정치적 지도력의 주축과 결부되어야만 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물론 북한 정책의 자급자족 체제(austerity)가 아니라 통합 경제와 분명한 기초를 특징으로 한 정책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분배 효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있지만, 장기적인 1인당 소득 증가에 의해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완전

히 국제 경제의 방해를 피하기 어렵지만 정치적 자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모델이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듯이 제3세계 민족, 민중들이 취할 수 있는 발전 전략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중 순수(선진) 자본주의 전략들은 일정정도 자본주의에 안착한 국가들을 취할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제3세계 저발전 국가들이 취하기에는 힘든 전략들이다. 한편 수입대체 산업화나 녹색혁명전략은 인구 대국이나 자립대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자급자족(Autarky)적 경제체제에 가까운 국가 사회들이 취하기에 적합한 체제이다. 그러나 인도나 브라질의 실패에서 보듯이 그 성과는 미지수이다.

그 외는 산업화전략과 외부지향전략의 혼합인 수출 주도산업화 전략인데 이는 동아시아 모델의 파탄으로 그 허구가 뒤흔들려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사회주의전략인데 과연 몰락한 사회주의 전략이 제3세계의 발전 전략으로 타당할 것인가. 물론 우리는 몰락한 소련의 사회주의 전략 즉 스탈린 노선이 가지는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다. 즉 봉건적 소련이 급속한 민족 분규에 휩싸인 것은 바로 소련 모델의 불균형성장전략이 내한한 문제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역시 제3세계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립적 민족경제'라는 북한 모델을 검토해야한다. 이 작업을 다음 장에 넘기도록 하자.

이재호 (세계 민족경제 연구소)

나래이동통신 www.naray.com

보리의 캠퍼스 생활엔 빈틈이 없다!

국내 유일! 도우미에게 말로하는 문자서비스

나래 씨씨전보

말만 하면 글로 뜬다! - 나래 씨씨전보

- 도우미에게 말해도 녹음으로 남겨도 40글자까지 비로버!
- 보낸 확인! 께빠화된 전화요금! 70%까지 줄어든다!!
- 무료영화, 콘서트도 보고 씨씨전보도 즐기는 쿠폰정보호출!
- 틈틈이, 날씨, 인터넷 정보 등을 받는 맞춤형보호출까지!
- 요금은 한 달에 11,900원! 숫자씨씨와 1,000원 차이뿐!

삐빠번호가 적힌 팬시명함 무료 증정

빛나는 대학생활의 필수품 팬시명함 - 나래 씨씨전보에 가입하시면 삐빠번호가 적힌 팬시명함 100매를 무료 제작하여 우편 발송 해드립니다.

가입상담 6067-015

- 신규가입고객은 특별할 혜택을 드립니다.
- 영남으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나래대리점을 안내해드립니다.
- 강남영업소: (02)5578-015 • 서부영업소: (02)6036-015
- 인천영업소: (032)4349-015 • 수원영업소: (0331)2168-015

미국의 한반도 전쟁반대와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시국대토론회

부인할 수 없는 미국의 지배...반외세·민족자주로 극복

지난 6일(토) 홍익대학교 신관강당에서는 민족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대투위)와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주최로 '미국의 한반도 전쟁반대와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시국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반 토론회는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각 단체들이 현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세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민족의 자주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토론회의 발표를 고품질로써 우리가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 정세의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전쟁행동 분쇄와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민족자주주의식 확산·고조와 민족대단결 실현의 절박성에 대하여

김규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1949년 일제가 물러가고 정권으로 이 땅에 군림한 미국은 자국의 영향력이 있던 유엔으로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문제 승인을 얻어내고, 본격적인 한반도 분할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집권과 있던 이승만은 미국의 이익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미국은 장기집권을 노리던 이승만에 대한 국민의 적반하장 운동, 대통령 하야를 종용하게 된다.

미국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정권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금융정책의 개방요구는 환란을 자초하게 되어있다.

미국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정권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금융정책의 개방요구는 환란을 자초하게 되어있다.

미국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정권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금융정책의 개방요구는 환란을 자초하게 되어있다.

미국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정권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금융정책의 개방요구는 환란을 자초하게 되어있다.

미국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정권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금융정책의 개방요구는 환란을 자초하게 되어있다.



김대중정권 1년을 평가한다 3·1운동 80주년을 맞이하여 이수강 (민족자주수호협의회 회장)

이 땅에 김대중정권이 집권한지도 1년이 되었다. 김대중정권 취임 1년의 행보는 4천만 국민의 정권과 분노를 하얗게 달게 하고 있다.

특히나 김대중 정권은 우리 국민의 최대의 지향과 염원인 조국통일현실을 철저히 소홀히 해왔던 것이다.

특히나 김대중 정권은 우리 국민의 최대의 지향과 염원인 조국통일현실을 철저히 소홀히 해왔던 것이다.

특히나 김대중 정권은 우리 국민의 최대의 지향과 염원인 조국통일현실을 철저히 소홀히 해왔던 것이다.

특히나 김대중 정권은 우리 국민의 최대의 지향과 염원인 조국통일현실을 철저히 소홀히 해왔던 것이다.

특히나 김대중 정권은 우리 국민의 최대의 지향과 염원인 조국통일현실을 철저히 소홀히 해왔던 것이다.

특히나 김대중 정권은 우리 국민의 최대의 지향과 염원인 조국통일현실을 철저히 소홀히 해왔던 것이다.

특히나 김대중 정권은 우리 국민의 최대의 지향과 염원인 조국통일현실을 철저히 소홀히 해왔던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북미 평화협정체결의 정당성과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및 주한 미군 철수의 절박성에 대하여

소문(민자투)

지금 한반도는 긴장과 전쟁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는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다.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하여 북미 평화협정체결과 미군 철수를 강요해야만 한다.

특히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북한은 북한이민이 전쟁을 벌이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다.

특히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는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다.

특히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는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다.

특히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는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다.

특히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는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다.

특히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는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다.

특히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는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다.

특히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는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다.

특히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는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다.

특히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는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다.

특히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는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다.

특히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는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다.

특히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는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다.

특히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는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다.

특히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는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다.

Advertisement for LG '99 21st Century New Product Showcase. It features a man in a white shirt and dark vest standing on a large globe. The text includes 'LG Global Challenger' and '99 LG 21세기 선발대 모집'. A list of products and their features is provided on the right side of the advertisement.

“오히려 학생들이 안됐어요”

학교 앞 노점상 급격한 증가...2/3가 '초보' 노점상

노점상유형 통해 본 학교 앞 노점상 유형

IMF 1년 3개월째 실업자 4백만대를 맞는 한국의 지표는 다행히도 학교 앞 노점상들의 급격한 증가에서부터 확인해 드려진다. 실제로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집계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IMF이전보다 회원 수가 20%나 늘었다고 한다. 그들은 왜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서야만 했을까? 본보는 노점상 이치에, 아주머니들의 사연 많은 삶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보기로 했다.

“발랑 발랑” 소리와 함께 서서히 내려오는 가로대가 지나가는 자동차의 행렬을 막는다. 지상으로 열차가 다니는 외대앞역, 그 옆으로 늘어선 고관고민한 놀이의 건물들.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주변 풍경은 웬지 사공스런 풍취를 지니었다. 거기에 또 하나 일조하는 것이 있다. 바로 2~3여기나 되는 학교 주변의 노점상들이다.

떡볶이, 호떡, 계란빵 등등의 군것질거리부터 아메리카노, 과일, 주방용품 등 물건들도 가지가지인 노점상들은 작년 가을 까지만 해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작년 겨울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다.

실제로 이들 중 2/3가 개업한 지 3~4개월 남짓밖에 안 되는 초보들이다.

교문 앞에서 호떡을 구워 파는 한 아주머니는, “작년 11월초쯤 시작했지, 바깥안반이 실직해 놀면 뭐하니 하는 생각이 나왔는데 모양이 안 이쁘다고 사람들이 잘 안사기”라며 내뱉는

말을 듣는다. 원래 학생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른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는 이 아주머니는, “하루 2만 원어치 정도 파는데 학생하고 일반적 가르보면 안 팔고도 받지, 근에 인건까지 차비가 왔다갔다 2500원이라 남는것도 없어, 애들구 아직 몰라, 시간당 팔아서 석계역 근처에 사는데 아직 팔 할마다 못까내어”라며 속사정을 털어 놓는다.

거리도 먼데 다른 일을 찾아보시지 그랬냐는 물음에 “집에서 놀던 사람이 뭐 이놈에 있어야 할 걸 알지, 아픈 나이두 팔아서 파출부 같은 힘든 일은 못하러”라며 손을 내두른다.

음반가가 앞에서 떡볶이를 파는 또 다른 노점상 주부 이모씨(30)는 세상에 팔을 들이 엄마다. 이모씨 또한 사정은 비슷하다. “집이 이 근처였는데 1월에 이사를 가서 직장부에서 다녀요, 아침마다 딸애를 놀이방에 맡기고 오는 데 그때가 제일 가슴이 아프죠, 일도 손에 익지 않아 손을 떼기도 하고요. 가끔 구경 단속반이 나오면 리어카를 끌고 잠시 피해서 오곤 해요, 그래도 이쪽(동대문구)은 단속이 심하지 않아 장사할만 해요.”

그러면 일찌감치 학교 앞에 자리를 잡은 상인들은 어떨까?

“계란빵 이저서”로 유명한 정모씨(28)씨는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작년 가을 초보다 매출이 1/3로 줄었다고 전한다.

“우리가 사람들이 거리에서 장사하는 걸 꺼려하는 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만해서는

노점을 안하려고 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온 걸 보면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니겠어”라는 장씨는 “난 지난 대선 때 권영진씨 찍었어. 다른 건 몰라도 못사는 사람들과 함께 했었다는 그 공약이 풀려라. 지금 상황이 이런데 장지하는 사람들 보면...”라며 말을 끝내 잊지 못하고 담배를 한대 꺼내 피우며 본다. 하중 속으로 짓어드는 담배연기 속에 그의 삶의 무게가 실려 있는 듯하다.

머그다나 노점상 일은 계속 혼자 해야하기 때문에 꽤 고독한 일이라고 한다. “10시쯤 일을 마치고는 길 주변 포장을 걷고 남은 재료를 정리 할 때면 외로움이 밀려오죠, 그래서 빨리 싸시를 찾고 싶은데 요즘 아가씨들이 어디 힘든 일 하고도 합니까?”라고 되묻는 장씨는 “그때도 난 요즘은 대학생들이 더 안됐어요, 졸업해도 취직도 잘 안되는데 아침부터 가랑하고 도서관 가는 모습을 보면 계란빵이나 마 공짜로 주고 싶죠.” 오히려 학생들을 위로한다.

학교앞에서 만난 노점상인들은 이 외에도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다. 실직 후 부부가 함께 나와 장사하는 김씨에게서 내외, 장차장애자 노점상인 이씨 등.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지만 이들의 IMF 겨울나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하다.

생활 시 평

남나리, 그 다음엔 누구?

스포츠 영웅시대. 2등은 결코 기억하지 않으며, 언제나 1등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언론의 영웅이 되어 등장할 자격이 주어지는 스포츠 영웅시대 말이다. 박찬호, 박세리, 박지은에 이어 또 한명의 영웅주자가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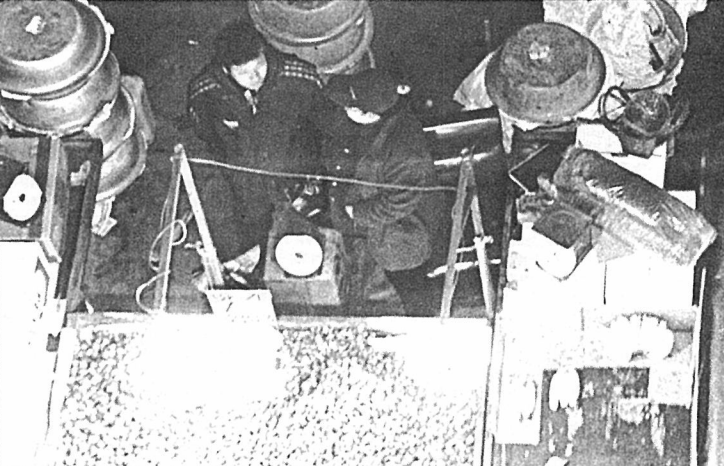
이번엔 13살의 어린 소녀인 재이교도 남나리 양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남나리는 지난 39경기 주자로 피겨스케이팅 대회에서 여자 싱글 2위를 차지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스포츠계가 ‘1세대 은반요정’ ‘3세대 피겨요정’이니 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남나리 신드롬’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박세리 열풍도 극대국 있었다. IMF로 인한 고달픈 현실에 지친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의 사도이며 자란 대한의 딸, 박세리라고 언론들은 애대위 그녀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국민들은 박세리로 인해 답답한 경제-정치권 등에 한숨 돌리고 (SAMSUNG)가 과하게 바친 묘자를 쓰고 필드를 누비는 그

너를 기록한 눈으로 바라보며 시름을 놓았다. 이것이 바로 ‘S 정적’의 일면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 최근 외국어 한 언론에서는 남나리로 바뀐을 기뻐하기도 했다. 그 내요는 “한국은 전인이다. 선수가 잘 나갈때만 응원을 하며, 실적이 좋지 않으면 관심도 없다”라는 의미로 지적부진으로 우리의(실제로는 위정자들과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져 박세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다시 남나리로 돌아오면, 오는 2002년 동계올림픽에서 남나리가 바라는 금메달이려면 남나리의 국적을 바꿔야 한다느니 하며 또 언론은 때때로 고른다.

이번 스포츠 영웅들에 대한 일련의 모습들을 보며 작년 언론의 지나친 취재요청과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환영, 만찬 행사들을 불러다나 결국 괴로로 탈진 상태에 빠져 박세리가 입원까지 했던 기억이 난다. 방송에서 눈물흘리던 박세리의모습에 요즘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친친친친하고 웃고있는 작은 소녀의 얼굴이 오히려하는 것은 왜일까?

문화부장



비버니는 별고기와 젓방입니다

(2) 영화로 읽는 브라질 문학 - 중앙역 1

비참함 속 현실극복 의지

우리 나라에는 이제까지 브라질 영화가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아서 요즘을 알려 샬레스 감독의 영화 (중앙역1998)이 시나 곳곳에서 상영되고 있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보게되면 이내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대해 혼란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영화의 배경과 스토리가 너무나 비참하고 슬프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남미 국가에서 나타나는 극심한 빈부의 차이는 이미 식민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에 가깝다. 따라서 감독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하류층 사람들의 삶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영화의 배경은 곧 생각나는 리우 데 제네이루의 현대적 고층건물에서 사는 빈민가주거지와 기근을 피해 남쪽으로 이주한 북동부 지역의 이농민이 밀려오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북잡하고 지저분한 길거리, 이 영화의 제목인 중앙역이다. 그곳에서 관할된 빈민들의 삶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다. 과연 편지를 대릴하는 것이 직업이 될 수 있을까? 그만큼 브라질의 문명률이 높은 것인가? 그리고 불건을 출친 도둑은 역 경비원에 아무런 벌칙 절차 없이 무참히 사살되어도 괜찮은 것인가? 어떻게 역 경비원이 인신매매를 주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영화의 정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장면들을 이루어

최구과 (프로투알과 강사)

생애영웅

우리역사의 수수께끼

이책은 192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 MIT교수로 재직하면서 남긴 그의 성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이 책에서는 그가 살아오면서 겪은 스페인 내전, 히로시마 원폭투하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쓴 사건들도 담고 있다.

이 책은 세계적인 실리·사회학자인 찰스키의 성장과정, 업적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다. 찰스키는 192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 MIT교수로 재직하면서 남긴 그의 성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이 책에서는 그가 살아오면서 겪은 스페인 내전, 히로시마 원폭투하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쓴 사건들도 담고 있다.

오른 3월 27일(토) 7시부터 10시까지 '시대를 가르는 청년의 합성, 파문99'가 서강대학교 청년공장에서 열린다. 노동시간 단축, 진보정치 실현을 위한 문화제는 이 공연에는 정태준, 권진원 등 대중가수와 서용석의 노래 연주 '삶의 소리' 성대 몸짓극 '정물', 전복작의 막 밴드 '게릴라' 등이 출연한다.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주최하며 전국학생회협의회(준), 민주노총 서울본부, 청년진보당 등에서 후원하며 입장료는 7000원이다. 이 공연은 '노동자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시도: 15일(토) 16일(토) 17일(수) 18일(목) 19일(금) 20일(토)

가면극 연극 '갈등'의 진행 차

순서별 우회입장 1300

순서별 우회입장 1300

특별공연

화내 문화행사 일정보

서울배움터

| 구분 | 학 생 | | | 대 학 원 생 | |
|---------|----------------|----------------|----------------|-----------------|------------------|
| 요일 | 이점 | 점심A | 저녁 | 백반 | 일몰요리 |
| 월 (15일) | 점심A (W1,400) | 점심점 (W1,400) | 비프라이드 (W1,400) | 4석이대국 (W2,300) | 한식요리 (W1,200) |
| 화 (16일) | 단체점 (W1,400) | 대우메단 (W1,400) | 오무라이프 (W1,600) | 무우어묵국 (W2,300) | 삼계탕 (W2,700) |
| 수 (17일) | 무우어묵국 (W1,400) | 산채비빔밥 (W1,400) | 왕보쌈 (W1,400) | 참이슬사골국 (W2,300) | 소고기갈고리탕 (W3,200) |
| 목 (18일) | 순두부국 (W1,300) | 보양이대 (W1,300) | 삼계탕 (W1,500) | 호박감자국 (W2,300) | 비빔국수 (W2,500) |
| 금 (19일) | 육개장 (W1,500) | 김치비빔밥 (W1,400) | 원경이대 (W1,500) | 국수 (W2,300) | 애반국 (W2,500) |

공인배움터

| 구분 | 어 문 관 | | | 후 복 관 | | |
|---------|-----------------|---------------|---------------|---------------|----------------|---------------|
| 요일 | 중심1 | 중심2 | 석식 | 조·중식 | 일발/일식 | 탕류 |
| 월 (15일) | 오양이대 (W1,400) | 점심점 (W1,800) | 수해이대 (W1,400) | 순두부국 (W1,400) | 석식·일식 (W1,500) | 삼계탕 (W1,800) |
| 화 (16일) | 대우비빔밥 (W1,400) | 산채비빔 (W1,800) | 이대 (W1,400) | 마인국 (W1,500) | 산채비빔 (W1,500) | 수해이대 (W1,800) |
| 수 (17일) | 참이슬사골국 (W1,400) | 김치비 (W1,800) | 왕이대 (W1,400) | 순두부국 (W1,400) | 삼계탕 (W1,500) | 김치비 (W1,800) |
| 목 (18일) | 비빔국수 (W1,400) | 김치 (W1,800) | 산채비빔 (W1,400) | 오양이대 (W1,400) | 소고기 (W1,500) | 삼계탕 (W1,800) |
| 금 (19일) | 보양이대 (W1,400) | 육개장 (W1,800) | 삼계탕 (W1,400) | 김치비 (W1,400) | 모듬가스 (W2,000) | 육개장 (W1,800) |

북의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 의미

“우리 서로 만납시다”

북, 합동군사훈련 중단, 국보법철폐 등 통일선결과제 제시
조국통일 3대원칙 무시하는 남한의 태도, '의미없는 공치레'

지난 2월 3일 북은 '정부정당단체 연합회'를 제안하는 서한을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재야, 학생, 종교단체와 언론사, 시민단체 등 남의 각계대표 150여명에게 보냈다.

한편 정부의 제안 거부에 대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의 성명을 통해 "구체적 입장표명이 담담 회담을 개최하자는 것은 의미없는 공치레에 불과하다"라며 "김대중 정부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근거해 남북대화에 성실치 않아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상생수익방향을 위한 공동대처위원회(민중공동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와의 대화는 남북교류 정상회담제안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꾀하고 있는 촉망이 크나 할 수 없다."

북에서 제안된 서한을 받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와 이의 일관인 '남북교류 정상회담'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이 진정한 민족의 이익에 기초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대기련 공기관

총련 개강투쟁선포식 진행

등록금·일자리 걱정... 미국의 경제침탈, 바로 내 문제

(1면에서 이어짐)

또한 미국의 정책행동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마태복음장편 배의 벌이 갈수록 강경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행동과 경제침탈 사실을 지적해야 함을 주장하는 의견도 강도 높게 제기됐다.

서훈련 임시의장 이철희(총대 총학생회장)군은 "새내기들이 학교는 활기가 넘쳐 있다. 그러나 등록금 걱정하는 어머니, 손때묻은 책상과 작업현장을 뒤로한채 눈물을 머금고 수박에 있는 아버지를 둔 우리 새내기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라며 "신자유주의 정책이 남한사회에 미치는 경제침탈을 가속화 했으니 이는 제3세계 민중들의 투쟁해 주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각 수 없다는 판단이 들자 '정쟁행동' 행각을 사슴없이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정책행동, 경제침탈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후 교문 선전전을 통해 집회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안기부' 깃발과 일장기, 성조기 화형식을 진행했고, 각종 선전작업을 통해 학생,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만들어냈다. 선전활동은 관심있게 보고 있던 연세대 공과대학 안 학생은 "직접 대열에서 서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며 "정쟁행동은 이기질없는 공익이 있다"라며 "당장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떡하든 사실이 현실을 알게 해 주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현행 교육, 2월달 있을 '미국의 정책행동, 경제침탈, 노동조합 분쇄와 주한미군 철거,



국가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4·2 한총련 총결기는 민중의 자위와 억압으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김대중 정권의 본질을 알려주고 미국의 정책행동 완전분쇄, 경제침탈과 교육침탈을 노골화하는 미국의 정책을 규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일 개최될 '미국의 경제침탈, 정쟁

행동 반대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4·3 민중대회'는 전국 노동자, 청년학생과 시민들이 연대해 미국의 경제침탈 본질에 대해 알려내고, 생존권 유린 정책을 벌이는 김대중 정권 퇴진과 각 계급, 계층의 민중과 합의를 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경선 기자

영양악기·이천전기, DJ 반노동정책에 신음

정권의 노동자 탄압이 심화되고 있다.

인원감축과 조업단축, 임금삭감과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영양악기'가 지난 4월(목) 직접제세를 강행했다.

회사는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사항을 어기고, 직원중요인 특별만료조각까지 결렬시켜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대해 영양악기 노조 홍보부장 전병철 씨는 "참다 못한 조합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들어가자 회사는 사정장보 없이 기습적으로 직장을 폐쇄하고 말았으니"라며 "체불임금 2월까지 지급하겠다는 합의사항을 어진 뻔한 경영진과 회사

측의 횡포에 맞서 투쟁할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승계 문제로 8개월간의 농성을 전개해온 이천전기 노동조합 천창봉성재가 운영권과 관련해 11일(목) 0시 퇴사했다.

지난 11일(목) 0시 퇴사한 뒤 20여명의 운영권과 관련해 경비를 동원하여 조합원을 폭행하고, 이소식을 듣고 있던 조합원의 부인마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천전기 노동조합 관계자는 "노동자의 정당한 고용보장 요구까지 폭력으로 짓밟는 것이 바로 김대중 정권이다. 이것이 우리사회 노동자의 현실이다"라며 김대중 정권의 반노동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권, 한총련 탈퇴 강요 기택침입·협박 자행

지난 9월(화) 서산예술단 전기전자대 학생회장의 일명 형사가 출신, 한총련 개인 탈퇴서를 강요·협박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동부지구학생회연합(동총련)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경찰서 보안소속 감형사라고 밝힌 한 형과 또다른 형사 한명이 막부기초산업대 대학원 기택에 집입, 전기전자대 학생회장의 누나에게 탈퇴서를 들이밀며 "15일까지 탈퇴서를 작성하라 한다. 15일날 다시 올테니 탈퇴서를 써 놓으라"고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학생회연합(한총련)의 한 관계자는 "형사들이 기택에 있던 탈퇴서는 이름과 내용이 적혀있고, 도장만 찍으면 되게끔 만든 탈퇴서였다.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개인탈퇴서를 강요하는 정권의 비정상적인 탄압상정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사회부

범청학련 공동시무국 김대원 대표 편지도착

지난 4일(목) 조국통일범민족학생회연합(범청학련) 제1기 공동시무국 남측대표 김대원 학생이 한국대학학생회연합(한총련) 백민학생들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편지를 통해 "자신이 탄 배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도 모르는 사립은 결국 표류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라며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때 세계에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분단민족의 자위여 보이기 않습니다"라고 현재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미국의 전장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 그는 "내향적, 내일을 그리는 슬픔도 큰데 하나의 민족이 왜 총부리를 겨누어야 할지"라며 외세의 간섭이래 고통받는 4천만 민족의 심소리를 조국통일로 잠재우자고 밝혔다.

사회부

전국어민총연합회 화장 유공구씨를 만나

“한일어협은 파기해야 합니다”

지난 11일에 체결된 한일어협정 이후 각계급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인해 한총련 노인이 되었을 독도를 일본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70%를 일본에게 넘겨주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반대로 전국어민총연합회 회장 유공구씨를 만나 어린이들의 실상과 한일어협정이 미치는 영향, 앞으로의 활동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활동하는 데 어려움은 아직 단체구성 초기라 어린이들을 조직화 할만한 구성이 없어 상당히 힘들다.

조직화의 문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다른 단체와 학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독도를 상실하게 된 사안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언론의 보도는 미약하다. 영토의 문제는 민족의 자구권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나서서 반대해야 할 일인데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부해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불평등한 한일어협은 무조건 파기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급격한 환경변화와 파탄직전에 놓인 어민생존과 수산업 보존을 위하여 어민 투쟁방향을 재검토하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한일어협정 철폐'를 위한 범민소위를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1965년 대일어협정 체결로 학생들이 우리 어장을 뺏기는 것에 반대, 투쟁했던 역사를 잊고 있다. 이번 어협을 통해 우리 땅인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겼고, 어린이들이 살갓을 잃어 버리게 되었다. 학생들이 정경감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일어협 반대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전대기련 공동기자단

전국대학신문 기자연합회장

김세규 선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연합회의

남한 1500명의 재야·학생·종교·단체와 언론사,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2월 3일, 북으로부터 정부정당단체 연합회 제안 서한을 받았다. 서한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 '이동통신'을 통해 전달된 북의 서한이 담긴 봉투

Advertisement for ShinSngi 017 Family Free Weekend. Features a clock showing 9:00 AM, a calendar for 017, and a woman holding a sign. Text includes: "무료통화, 알지는 따로 있다!", "매일 9시간 6분씩 평생 공짜", "017패밀리 무료요금역시 최고!", "이동전화 무료통화 혜택,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조목조목 따져 보십시오.", "SHNSNGI 신승기통신"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김대중정권, '미국'에 살고 '민중'에 죽는다

- 1. 사대매국의 역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DJ.
- 2. 미국이 한다면 '전쟁'도 한다.
- 3.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경제주권의 양도

한반도 이남은 침략선언을 들고온 미군정과 이어 결탁한 남한 정권에 의해 유린당해온 역사의 아픔을 안고 있다. 해방이후 미국을 등에 업고 등장한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김대중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3회에 걸쳐 미국과 공존공생 할 수밖에 없는 남한 정권의 본질을 민중들의 투쟁을 통해 김대중 정권의 사대매국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민중의 분노, "예속의 역사를 끊어라"

60 민중의 힘으로 친미·피쇼 이승만 하야

1948년 남한 단독으로 수립된 이승만 정권은 주한미군 영구주둔 보장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아무런 법적절차없이 한국군의 지휘권을 미군에 위임한 '내전협정' 체결, 남한 민족정체를 뿌리째 흔들고, 남한 경제정책 전반을 미국이 통제할 수 있게 만든 '원조' 도입, 과거 일본인들의 재산을 미군정과 이승만 등이 고스란히 나눠가졌던 '적산분배' 등의 정책을 펴면서 미국에 철저히 예속된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이러한 반민족, 반민중적인 독재정권은 '반공'이라는 명목하에 정치적 억압을 자행할 수밖에 없었다. 극단적인 정치적 억압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임기를 연장하려는 이승만의 야욕으로 인한 3·15 부상선거를 기점으로 민중들의 분노는 폭발하였다.

60년 4월 11일 '3·15 반대시위'를 벌이던 김주열군이 교복차림인 채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시상으로 발전된 사건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1948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누구도 신용할 수 없다', '민중의 비탄은 심화되었다'고 쓰여진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으며, 10만 이상의 시민들은 대학생들과 함께 '반독재' 투쟁을 벌였다. 자유당 본부, 어용신문이었던 서울신문과 서울방송국, 대한반공청년단 본부는 불태워 휩쓸렸으며, 미국대사관과 미일조계본도 투쟁대열의 분노를 피해갈 수 없었다. 억압적 대상으로 상징되는 모든 건물과 반공화관 등이 타격대상이 되었다.

이승만은 이날 서울을 비롯한 각 도시에 계엄령을 선포, 1백83명의 사망자와 6만2천599명의 부상자를 내며 유혈진압했다. 투쟁으로 촉발된 민중들의 원한적인 움직임은 결코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4월혁명을 통해 이승만은 권좌에서 물러나게 된다.

80 재태도, 양기호를 외친 전민항쟁

박정희의 죽음으로 인한 권력의 공백상태에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실권부는 1979년 12월 12일 군사 쿠데타로 실질적 권력을 잡은 이후 나날이 높아져만 가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80년 5월 17일 계엄령을 전국에 확대하고, 가동화된 파쇼체제를 가동시켰다.

전국적으로 불붙은 민주투쟁을 허우적임에 사그라들게 만들었던 실권부의 계엄령 확대에 반기를 든 광주시민들은 △계엄령을 철폐하라 △전두환을 몰라라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내걸고 '전두환 집권 지지 투쟁'과 '민주와 항구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광주에 신군부에 의해 철거되고, 봉쇄된 채 재태머본의 살인집안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군함이 부산항에 들어와있다는 소식이 광주시에 퍼질 때 이른바 5.18광장지프도부는 김재태를 찾았다. 김정은 해방직후 당시 건국준비위원회 노동부장을 지낸 민주주의자였다. "미군이 우리를 도우려 부산항에 도착했답니다."

"이 보람적인 놀음이, 여고 군사부수권을 누가 갖고 있나 이미 미국은 17일날부터 전투원 편이 됐어. 곧 미국의 허락하에 진입을 할

것이야." 해방직후 당시 미군정을 경멸하면서 미국의 본질을 간파했던 이 실제인물의 증언은 정확했다. 당시 광주 시내에서 주도적으로 삼삼을 저지했던 공수전단 제20사단 병력과 위급 위하의 군대투입은 한국군의 군사작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명백하며, 실질적으로 신군부가 미국의 지지와 비호 아래 광주진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민중들의 반미지주투쟁의 본격적 맥이 오르게 되었다.

광주에서 2월혁명을 상상하고 권력을 차지한 전두환은 높아져가는 민중들의 분노를 잠재우려 고교 파쇼관할정책을 발표하고 결국 장기집권을 위한 4·13 호헌조치를 단행하였고 그러던 와중에 발생한 정권의 사내내 철권군 고문살해는 민중들의 반군부투쟁을 향한 투쟁에 불을 당겼다.

80년 6월, '호헌철폐', '독재타도', '양기호를 외쳐라' 전국 곳곳에서 20여일동안 밤낮 없이 계속된 민중항쟁의 대원은 더이상 경찰치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정권은 한발 물러서 대통령선거 직선제를 수락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6·29 선언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91 '노태우 타도' 외치며 죽어간 열사정국

△강경태(20세) '노태우 군사정권 타도시위' 중 백골단의 쇠파이프 난타로 심장 내출혈 사망 △강경태(21세) '노태우 정권 타도, 공안 통치분쇄' 외치며 분신 △김재용(20세) 5천경원대 단결투쟁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외치며 분신·투신 △박승호(20세) '노태우 정권 타도하고 미국놈들 몰아내자' 외치며 분신 △김철수(18세) '노태우 정권 퇴진' 외치며 분신 △정성산(25세) '노태우 물러가라'며 투신 △김기철(26세) '폭력살인 민형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외치며 분신·투신 △윤용하(22세) '노태우 정권 타도' 외치며 분신...

81년 정국민의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정착하고 치러진 대통령 선거 또한 한계를 초월하고 있었다. 여전히 어마한 미국의 지지와 비호 아래 엄청난 로비와 부정을 일삼았고, 야당후보 본연의 지역주의가 대두되면서 전두환의 뒤를 이은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장기집권·내각제 개헌을 통한 지배체제 안

정화 정책과 뇌물유류, 수사비리, 물고기와 민생파탄으로 얼룩진 노태우정권에 대한 민중들의 불만이 누적돼온 상황에서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강경대 학생 폭력 살인'은 노태우 정권의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내주었고, 이에 많은 애국세력들이 '반노태우' 투쟁을 벌였다. '고 강경대 열사 추락살인규탄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회회의'가 발족되고 신민당, 민주당 등 당시 제야당파들까지 '반자타당 반노태우' 세력으로 개세, 노태우 정권 퇴진투쟁 벌였다. 그러나 범국민대회를 필두로한 그야말로 투쟁은 가속화되는 국민들의 반민중, 피쇼매국적인 노태우 정권 퇴진의 분노를 모아지지 못했다.

결국 91년 여름을 통틀어는 정권의 '3대 야합'으로 김영삼 정부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본질상 특권인 '반민중', '반민주', '친미 사대매국' 정권의 출범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 모순 속에서 민중들의 '민주화 투쟁'은 계속되었다.

65 미국 위해 일본에 무릎 꿇은 박정희

한국군의 작전권역이 미국에 의해 장악되어 어떠한 형태의 군부대 이동도 주한미군사령관의 사전허락 없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은 미국의 사전동의 없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렇듯 61년 5월 10일 미국의 적극적 지지, 비호 아래 탄생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또한 반민중적, 반민중적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64년 '한일국교정상화' 회담과 이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협정'은 박정희의 사대매국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국은 앞으로 아시아에서 한국전쟁, 대만 해방전쟁과 같은 국지전이 일어날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 경우 재일 미군이 분쟁지역(예컨대 베트남)으로 이동하여 북태평양군에 '진공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일본이 배우어야 한다. 일본을 방관한 집재트 미국방자군이 NHK-TV에서 했던 발언에서 극명해져서, '한일국교정상화'는 미국, 한국, 일본의 군사력 통합으로 당시 베트남 전쟁을 비롯한 미국의 동북아시아 집적 계획을 뒷받

침하는 '한사총원'이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선동하에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공식사과와 보상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체결된 한일협정정권은 민중들을 투쟁으로 몰아내었다.

6월 3일, 분노한 시민 8만여명은 국회의사당까지 시위를 진행했고 경찰서, 도청, 민주공화당 피습, 교통관제탑 점거투쟁을 벌이며 △한일관계정상화 반대 선동하는 미국 반대 △한일국교 의고 반대 △나라 말아먹는 정부 몰라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청의대까지 직격탄 시위에 대응을 느낀 박정희는 미 하우즈 장군의 허락으로 한국군 2개사단을 서울에 출동시키고 계엄령을 선포했다. 6월 5일자 '뉴욕 타임즈' 보도를 살펴보자.

"전두환체를 갖춘 군대가 한발짝도 서울로 출동하여 계엄령에 따라 대학, 경기장, 공공 등을 점령했다. 그들은 바쿠프로와 총검이 부속한 소총을 소지하였고 주요 도로에는 기관총을 설치하였다..."

65년 6·3항쟁은 미국과 박정희정권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97 문민독재정권, 김영삼은 하이하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체제들과의 야합을 통해 등장한 김영삼 정권은 '문민독재정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대통령선거에서 수조원의 돈으로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음이 드러나고, 한보비리를 비롯한 특대형 부정부리가 사건이 밝혀졌으며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의 부패행위가 폭로되었다. 역대 정권이 그러했듯 김영삼 정권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위기에 직면하자 파쇼관할을 거역없이 자행했다. 이에 노동자, 청년학생, 시민들은 △부패타도, 문민독재 정권 퇴진 △야합철폐 △살인폭력정권 타도 등의 구호를 내걸고 투쟁으로 맞섰다.

97년 3월 김영삼 반대투쟁을 벌이던 류재복군이 시위도중 정권이 던진 물체를 머리에도 맞고 사망함으로써 민중들의 분노는 더욱 고조되었다.

97년 전반에 걸쳐 △대선자금공개 △노·조·신민 반대 △김영삼 퇴진 투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이러한 항쟁은 50만 명의 정권교체를 이루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97년 투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본질적 모순인 미국을 편지지 못한

채 들어선 정권은 그 어떤 정권이라도 본질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는 1990년대 초 세계은행(IMRD) 주축으로 동아시아 개도국들의 경제를 잠식해 들어가기 위해 미국 금융자본의 공작 전술을 새로 연구·재편한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삼황과 워싱턴 합의에 제시된 미국의 '남방본'은 서로 각본을 짜놓은 것처럼 일치한다. '구조조정'을 하라는 의지가 없는 정권을 대체하러던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하며, 중도성원의 정당 2개가 연합할 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워싱턴합의의 내용은 IMF연합정권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권의 정치행로와 일치한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비롯한 각종 IMF정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김대중정권의 정책은 역대 어느 정권 못지 않은 '친미사대매국성'으로 미국과 결탁관계를 유지한채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모종의 결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실상은 다음 기획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생활문화운동 - 본심들을 찾아드립니다

날 좀 날 좀 찾아가요 **배달리~** **배달리~**

<이주의 본심들>

- 기방 - 검정색 이스트백(영아과 김미라) ● 지갑 - 크리스찬 디올 청색지갑(강보경), 검정색 지갑(오영석 주민등록증), 갈색지갑(대헌전대·김중민 학생증) ● 필통 - 회색필통 ● 핸드폰 - LG EVRC 스피드 011 ● 주민등록증 - (이영숙, 이성민, 주선인, 박정민, 유민경, 이지원) ● 학생증 - 송동화(사회과학계열 98), 이소희(한양대·자대 96), 김주영(상명대·무어학과 97) ● KT 카드(898211-022-2611-784) ● 대우신용카드(이준희 007-22-201381)

● 그동안 각 건물 안내실에서 보관하던 본심물들을 학생복지위원회에서 보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잃어버린 물 건이 있으면 학생복지위원회로 찾아 오십시오.

● 위치 : 학생회관 2층

● 문의 : 961-4447

교육칙락은 말한다 ③ 타국의 교육칙락 사례

인도에 인도인은 없었다

영국, 식민지 교육 통해 '영국화된 인도인' 양성



교육칙락은 말한다

순서

- ① 일제침략사상
- ② 일제침략사하
- ③ 타국의 교육칙락 사례
- ④ 연대 제국주의 하에서의 침략과정
- ⑤ 미국의 교육칙락사상
- ⑥ 미국의 교육칙락사중
- ⑦ 미국의 교육칙락사하
- ⑧ 제국주의 교육칙락 총괄
- ⑨ 교육칙락은 말한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교육칙락은 '근대화'라는 이름이래 식민지노예교육을 감행하며, '실용적 학문'을 가르치면서 전일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집단의 사람들에만 고등교육을 전수해 사실상 우리 민족들은 일본인들에게 깊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수단으로 되었다.

이러한 교육칙락은 우리나라 이외의 식민지 국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던 현상이다. 인도의 경우 영국인에 의한 교육칙락으로 민족내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영국인을 위한 고급 교육인이 만들어졌다.

인도의 교육칙락 사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영어지상주의와 서구문화에 대한 시대주의 현상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이후 서술될 미국의 교육칙락사 부분과 연관지어 보자. 현 우리나라 교육의 모습이 무엇인지 잘 드러남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편집자

영국인작가 E.M 포스터는 자신의 작품 '인도로 가는 길'(1924년)에서 인도인 아지즈가 영국인에게 던진 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영국인을 티도해야 한다. (중략) 우리는 어느 국민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들을 가장 증오했다. 내가 당신들을 좋아하지 못하더라도 이쁘트, 칼림이 그렇게 할 것이다. 5백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중략) 그렇게 되면 우리와 당신들은 친구가 되고야 말 것이다."

다. 민족독립이 달성됨으로써 비로소 지배국의 국민과 식민지의 국민간에 참된 우정과 유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독립의 교육을 매개로 유대의 교육이 성립한다.

"놈들은 우리를 모욕하도록 교육받았다. 어떤 영국인이라도 2년만 교육받으면 그렇게 된다. (중략) 여자의 경우에는 6개월이면 충분하다.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이다."

- '인도로 가는 길'에 기록된 아지즈의 영국인 비판문에서

이것은 영국국민의 인도에 대한 멸시와 대국주의사상에 대한 고발장이다. 독립의 교육은 스스로 노예의식을 극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배국민에게 그 대국주의 사상을 극복하는 교육을 요구한다.

인도의 근대교육 1백년사는 이처럼 민족주체성의 파괴와 회복이라는 두 가지 교육의 부정의 역사였다. 또한 그 역사는 근대 유럽국가의 국민에게는 달아 없었던 사회적 인식능력의 체득 과정이기도 했다.

인도인은 그 힘을 바탕으로 민족의 적이 누구인지 꿰뚫어보고 일관되게 독립투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인도인 대중은 대체로 타락하여 비관하며, 도덕관념이 없고 정의를 무시하며, 오만반자하고 사리사욕에 좌우되는 인물이라고 판단하지

← 영어 지상주의로 인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100년간 인도의 문명을 되조각했다. 시골은 영어수업 필로용으로 가득한 학내모습(위)과 국외도 잘 모르는 이인(아래)까지 영어수업을 받는 모습(아래)



않을 수 없다. 자연은 풍요로우나 비참함을 면치 못할 인종이다. 이에 대해 헨투고는 무능하기 때문에, 오로지 기독교와 영어, 영국문화의 도입, 농장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의 도입을 통해 서민 인종의 혁신은 달성된다. 그러므로 인도정부는 교육 및 종교활동을 원조해야 한다"

위의 내용은 기독교 서양문화의 우월성과 인도정부는 대국주의적 사상이 작나라하게 드러나는 말로서 당시 영국인들이 인도교육칙락에 대해 정당화하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전쟁과 침략을 피하고, 문화 및 교육영역의 민족주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서로·교육의 민족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 이것은 오직 영국인 지배자의 약 40년에 걸친 인도 고전문화 중심의 교육방침이 걸치려로써, 당시의 정치적 지배를 순회하게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영어 지상주의의 폐해

영국의 인도 지배와 더불어 영어는 여러방면으로 침투되었는데 통치기구가 확대·정비됨에 따라 인도인 하급관리를 고용할 필요도 있었다. 영어교육은 그 전제조건이었다. 이는 영국식민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인도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로 많은 인도인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던 당시, 영어를 배워 일거리를 구해 속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젊은 인도인의 가장 큰 욕망이었다. 따라서 인도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저점 적, 영어지상주의가 전격적으로 유포되었다.

이러한 영어 중심의 교육은 '영국화된 인도인'(우리나라로 치면 '미국화된 한국인')을 양성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영어에 의한 서양문화의 습득, 다른 한편으로는 영어에 의한 기초한 엘리트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도교육에 대한 영국의 지배방안이었다. 특히 '바와 같은 인도인에게는 언어·사상·종교·지식은 영국인 계급을 포괄한 사실은 교육에서 계급성의 노출적인 표현과 민족성의 파괴가 공명하게 결합되었음을 덧붙일 수 있다.

영어교육을 받은 헨투고는 태어선 자신의 종교를 고집하지 않는다. 민인 우리의 교육개혁이 계속된다면 1830년에는 병갈의 지식인들 중에서 단 한 명의 헨투고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굳이 개종하려고 노력하거나 인도의 종교적 자유를 수호하지 않고서도 오직 지식과 사교의 조작만으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당시 인도교육을 담당한 영국인의 말이다. 이러한 인도의 영문화는 서양문화·영어교육지상주의와 그 영문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목적과 방법은 필연적으로 엘리트교육을 채택하게 하였다. 이는 바로 일부 엘리트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이 번역

자·매거지로서 대중을 위로부터 계몽해나간다는 여과이론을 채택한 것에 다름아니다.

영어교육과 여과이론을 지주로 한 이러한 논리는 영어교육을 신장하고 민족교육을 방기한 교육정책으로 구현되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대다수 오직 청년들은 민족정신을 상실했고, 교육에서 소외된 대중의 자제는 문맹상태에 빠짐으로써 민족 내부에 정신적 분열을 야기하였다.

엘리트교육의 반민중성

교육내용과 방법은 그것을 통하여 인도 청년들의 민족주체성을 박탈했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대외의 정몽부 구성을 보면, 영국의 언어와 문화 및 법률 부분의 전공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 반해, 인도의 역사·문화의 학습 및 과학기술교육부분의 역사는 대단히 경미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초등학교이든 고등교육이든간에 영어가 모든 것에 앞서는 현상을 보면 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식민통치에 협력하는 인도인 관리의 양성을 도모하고, 또 한편으로는 근대과학으로부터 인도를 단절시키는 제도였으며, 이것이 손쉽게 해질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식민지 고등교육의 현상형태이다.

대학면역에 의한 통제는 제도에서 식민지배로의 연속성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 면에서 보면 대학의 획일화를 강화하여 그 연속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연속적·획일적인 대학의 성격은 인도인 학생을 민족 및 과학과 분리시키는 교육조건을 낳았다.

첫째, 대학입학의 목적이 '취직보통서'인 학위의 취득에 두는 풍조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시립이 교육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시험에 종속한다"는 시험과 자격을 지향하는 학식이 일반화되었다.

둘째, 고사는 대학에서 제정한 커리큘럼에 묶여 근대지식을 영어로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렀고 연구자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매우 어려웠으며, 인도의 발전을 위한 과학적조는 곤란했다. 셋째, 영어로 가르침에 따라 어학실력이 낮은 학생의 경우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학습태도 및 주입식 학습태도가 좌우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인도인 학생들이 민족주체성을 상실하였다.

이렇듯 영국인 지배자는 식민통치의 목적에 걸맞는 교육지배의 논리와 방법을 만들고 실현하였다. 영어교육과 여과이론이 그것이다. 그 밑바닥에는 서양문명지상주의가 깔려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인도인의 민족주체성을 박탈하고, 노예의식을 배양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었다. 식민지 인도에서 근대교육은 그 반 민족적 성격을 기초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전대기원 대학본과 공기관

이제 그만~~

0...여기는 텔레토비 동산 캐리텔레토비-북한에 림 쉐어졌어. 디제(DJ) 텔레토비- 캐리 텔레토비 해 플린턴 텔레토비- 아이 좋아~ 확실히 텔레토비 친구들, 이제 그만~ 정신차리고 자기 일이나 잘 해요 <강>

0...우리수강생님에 대한 학생의 불만사항이 교수에게 불려서 데리고 데 크로니클러 찾아서 보니 글머리 교육적 인(?) 글쓰라, 힘 꽤나 썼을 텐데 기말 시험이 너무도 미안해보이로군. 이를 안 99학번 새내기 질문

0...이해찬교육부장관이 새내기에게 보내는 편지

알고보니 배우조종사: 안기부, 예산부 담: 안기부, 편지작성: 안기부였는데... 뒷문 해주라, 무식한 머리 글머리 교육적 인(?) 글쓰라, 힘 꽤나 썼을 텐데 기말 시험이 너무도 미안해보이로군. 이를 안 99학번 새내기 질문

0...이해찬교육부장관이 새내기에게 보내는 편지

알고보니 배우조종사: 안기부, 예산부 담: 안기부, 편지작성: 안기부였는데... 뒷문 해주라, 무식한 머리 글머리 교육적 인(?) 글쓰라, 힘 꽤나 썼을 텐데 기말 시험이 너무도 미안해보이로군. 이를 안 99학번 새내기 질문

0...이해찬교육부장관이 새내기에게 보내는 편지

알고보니 배우조종사: 안기부, 예산부 담: 안기부, 편지작성: 안기부였는데... 뒷문 해주라, 무식한 머리 글머리 교육적 인(?) 글쓰라, 힘 꽤나 썼을 텐데 기말 시험이 너무도 미안해보이로군. 이를 안 99학번 새내기 질문



"혹시 온라인수강신청, 상태평가제도 안기부 작문 아니야?" <우>

0...모의 재판

"정말 한나라당 의원은 왜 서정원 전 의원을 고문했나?"

사: 당시 정시의 고문으로 밤 세 그곳 분량의 파를 찾았소.

재판관: 당신은 왜 서정원을 고문했소?

정: 그는 간첩이요!

재판관: 증거가 있소?

정: (반박하여) 그는 간첩이요!

재판관: 간첩이면 고문은 해도 됩니까?

정: 그는 간첩이요!!

재판관: 양대계군, 어버라, 여기 법규를 새개만 가져오너라. <사>

0...서울대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일부 학생들에게 병명을 당한 JP, 안중술 변호 앞에서 학생들에게 민선금과 민선문을 요구하자 중간에서 난처해진 판관경쟁자 장 시비로 변장하고 병명문 위조까지 하다가 들들떨러는데, JP와 학생들 싸움에 경찰서장 출동하는 세상. JP! 바랄 걸 바래라지, 그러다 경찰서장 하나도 안날 것이지요" <별>

민중의 지팡이의 거짓말

비둘기철판

이문벌

0출했습니다

· 만이나 한다면, 누군가의 곁에 서야 한다면, 그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면, ...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한다면 당신입니다. 연락처: 018-330-5464+시합날 백날

0출합니다

· 국제 경영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AIFSEC-HUFS로 오십시오. 전세계 87개국의 심판원이 넘는 회원이 모두 AIFSEC 인니니. (AIFSEC)

· 독일어과에서 알립니다. 16일 (화) - 정기총회 26일 (금) - 28일(일) - 총 MT 문의사항 있으면 (4525)로 연락주세요. (11대 혁신 독일어과화석회)

· 손소리샘 수화교실 때: 3월 16일부터 매주 화·목 늦은 5시30분부터 7시까지 곳: 1302(식당건물) 동아리방이 생겼습니다. 학생회관 4층으로 찾아주세요! <손소리샘>

· 제 23차 모의국제연합에서 준비위원을 모집합니다. 국제회의에 관심있는 분, 세계를 향한 신선한 시각을 가진 젊은이를 찾습니다. 모집기간: 3월 15(월) ~ 19(금) 지원자격: 파릇파릇한 새내기 99학번 학술적인 Support가 되어주실 고학년 지원방법: 학생회관 2층 모의국제연합에 비치되어 있는 지원서 작성

문의: 4458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

0수고하셨습니다

· 98·99 MT에 참가하신 학우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파총회와 총 MT에서도 별별 스킨의 기세를 이어나갑니다. (SC 9414022)

왕산 글

0출합니다

· 통풍군 삭감과 인문인의 하나됨을 위해 왕산등반대회가 20일(토) 10시에 있습니다. 인문인 여러분! 노고됨을 느껴라 갑시다. <인문대학생회>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466 팩스 : 961-4183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30-4112, 4580

『작후기 - '고창우도 연합 판국』

『적지말 - 김대중 대통령께』

새로울 수밖에 없는 전통문화들...

“준법서약서만은 안됩니다”

99년 1월
어김없이 이번 겨울에도 우리 '외대 풍물제 연합'에서는 전수를 갔다. 외대내 풍물제 중 우도 굽을 치는 각 단위 풍물패원들이 오왔던 예 모이게 되었다.

전수 장소는 정라북도 고향, 일주일간의 전수 기간동안 매일 반복되는 연습과 끈끈한 결사의 시간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늘어난 정수 실력과 겨우겨우는 우리를 보면서 부딪힐 역시 느낄 수 있었다. 평가를 계속하기 일주일 제, 우리는 앞으로 서울에서의 일정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되었다. 좁은 재각의 추운 밤안, 계속해서 피어나는 땀방울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전통 문화의 힘을 단지 이곳에서 조용히 끌어 올리고 싶었다. 그리고 한결같이 이야기 했다.

이렇게 해서 축하하지만 어렵게 공연 날짜를 잡았다.

3월 4일 '새내기 개강일이 고향 우도 연합 판국'

전수에서 돌아온 후 공연까지 2월 한달은 각자의 악기를 갈아내고 생활하였다. 추운 겨울 바람에도 잠잠하고, 좁은 방에 모여 앉아 마리아에 쓰는 고개를 만들면서, 우리는 우리가 공연을 해야만 하는 사명을 다시금 다짐했다.

새내기들에게 새로울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개함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과거 우리 선조들의 대들의 장

을 다시 열어보려는 의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품어나갔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짧게 느껴진 시간이었다. O.T, 새터, 입학식 등 신입생을 위한 각종 행사가 잡혔고, 그에 따르는 각종 공연 역시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었다. 공연하기 3일전에는 보름 굽을 치는 고향에 다시 한번 더 내려가서 "문굿"과 "판국" 공연을 직접 보면서 이해를 새롭게 하고 판국에 대한 마지막 준비 기술을 배워갔다.

그리고 공연일.
이월 일찍부터 준비를 했지만 미흡한 면이 드러났고 약속된 시간에 판국을 시작 할 수 없었다.

결국 20여분 지연된 끝에 첫 번째 순서인 학교를 한바퀴 돌면서 학교의 구역을 돌아보는 길놀이에서 겨우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새나기를 위한 고사를 지냈다. 비록 패지머리는 두꺼운 줄에 그려져 있었지만 처음 고사를 지내는 새내기들의 신기해하는 그 눈빛은 아직도 눈앞에 어른거린다.

고사를 마치고 곧바로 판국을 하였다. 첫째 마당, 둘째마당, 셋째마당을 모두 마칠 때 종마로소 관중을 의식할 수 있었고, '이! 내가 지금 이곳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마당을 다 돌리고 나서 각 차례별 '구경 놀이'에 들어갔다. 소고, 북, 징, 풍과리, 장구의 손으로 각 차례별 재능을 뽐내는 자리를 마칠 즈음 석양은 마지막 힘을 다해 우리를 밝혀 주었다.



판국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감동을 학생들에게 전해주었음과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동을 전해주는 시도를 계속해 나갈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인 막판,
관객과 치배가 하나가 되어 춤추고 즐기는, 서로가 적극적인 행위의 주체자로 다시 등장하는, 진정한 대들의 자리에서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면서 우리의 고향과 역을 손때묻은 고깔과 함께 태워버렸다. 뒤돌아를 하면서 모두 흔들렸지만, 보람된 날들을 보낸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밤 우리는 색다른 주인의 초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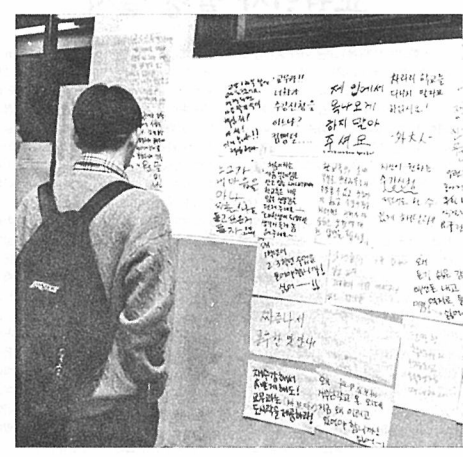
지금에서야 새내기들에게, 그리고 아직 새나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과연 얼마나 우리가 느꼈던 감동을 전해주었을까? 하

는 의문이 남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느꼈던 그 기분 그 마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만큼 아마도 한번에 새내기들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풍물로서 느꼈던 우리들의 감동을 전해주는 시도를 계속해 나가기 갈 것이라는 점이다. 풍물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의 어우러짐은 지속될 것이다.

김현수

(외대풍물제 연합 담당, 서생 1학년 3)



사 진 수 필

후배 ○○에게 일시적용 전선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구나. 본격적으로 그 수필생활에 접어들었으면 많이 힘드나!
풀만 칠고 견디라. 난 대학에 입학하니 얼마되지 않았지만, '대학'이라는 곳 한 번 다닐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 학교에서 온라인 수강신청 불만, 채수강시 B 학점 제한등의 학적문제로 말썸이 많았거든. 이에 우리는 기민히 잊지 않고 교무과에 항의도 하려고 우대의 요구가 담긴 대외부도 교무과를 통해 배워왔어. 당당히 우리의 권리를 찾으면서 건강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희망을 후배 내 녀석도 어서 빨리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10일(목)교무과 학회 회의 대외부 일대- 정효정 기자

편지
본부는 외대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 하이텔, 나우누리(NOCACHE) 이더 유나텔(외대백) 에도 0를 개설하였습니다.
나우누리, 하이텔(NOCACHE) 유나텔(외대백)

외대화보

안건 **투고금 받습니다**
흔히만 감상하기 어려운 외대의 작품을 읽습니다. 문예작품, 시, 에세이, 민화, 광고등 모든 종류의 작품을 받습니다. 더불어 기존의 학생 위주의 한정된 범위가 아닌 교수, 교직원, 직공까지 참여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에 한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모집분야: 원외형에서 광고까지 모든 문예작품
모집기간: 매주 목요일
문의: 학생지원 2층 학생기자실

외대화보

외대화보 61기 수습기자 모집 광고

바로 클릭 하십시오!

외대화보 수습 기자에 지원할까요?
NO YES

이 프로그램은 16일 까지 만입니다. 16일(화)까지 클릭하지 않으면 '평생회'라는 전산오류가 발생하오니 유의하십시오.

·모집대상: 99학번 새내기 ·모집기간: 3월 16일(화)까지 ·모집전형: 간단한 필기 및 면접 ·모집부서: 대학부 ·사회부 ·문화부 ·사진부 ·취소부 ·광고부 ·만화부 ·원서배부 및 문의: (서울)학생회관 2층 ☎ 961-4152, 4466 (문인)학생회관 2층 ☎ 335)330-4112